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60. 아데우스 포르투 (Adeus Porto)

포르투 마지막 날의 기억은 의외로 짧다. 딸과 함께 꿈처럼 흘러왔던 생일 여행의 끝은 다가왔고 우리가 떠날 날의 아침이 밝아왔다. 7시 즈음 눈이 떠져서 하얀 커튼이 쳐진 창을 통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포르투의 아침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군청색으로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한가운데 반달이 떠있고 지평선으로부터 하얀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R은 아직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일어나 코트를 걸치고 테라스로 나가 보았다.

지난밤에 보석처럼 빛나던 건물 조명은 다 꺼지고 청회색으로 물든 거리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교통 신호 등 외에는 가로등마저 다 꺼졌다. 자유광장 맞은편으로 보이는 맥도날드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포르투에 새날이 밝아 온다. 테라스 돌난간 위에 갈매기 두 마리가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디로 날아갈까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R과 나를 닮았군. 녀석들. 나는 혼자서 빙그레 웃음 지었다.

너무 추워서 곧 방으로 들어온 나는 R을 깨웠다. 아침 식사도 하고 짐도 챙겨야 하니 너무 늦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놀아서 피곤했지만 우리는 씩씩하게 샤워를 하고 아침식사를 하러 카페테리아로 갔다.

페스타나-골드스미스 호텔의 조식은 간단하고 소박했다. 카페테리아는 나무 가구들을 위주로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 놓았는데 편안한 분위기여서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카페테리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다 먹고 일어나버려 우리는 텅빈 카페테리아에서 조용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었다. 조식 메뉴는 다른 호텔과 다름없이 평범한 편이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온종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었다. 향이 진한 오리지널

포르투갈 커피를 언제 또 마셔 볼까? 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 잔 더 마셔 볼까 하다가 자제했다.

조식 후에 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천천히 짐을 쌌다. 호텔방에서 짐을 싸는 것도 이제 당분간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 괜히 착잡한 마음이 드는 나와 달리 R은 아침 식사를 하고 기운이 나는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람쥐처럼 움직인다. 스페인 자리에서 산 하늘색 꽃무늬 자수스웨터 세트를 입고 아래는 크립색 운동복 바지를 입은 다음 검은 가죽첼시 부츠를 신은 모습이 귀엽기 짝이 없었다. 우리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낸 '펜트하우스' 방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로비로 내려갔다.

미리 부탁했던 택시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프런트에 검은 곰솔머리 청년 직원이 우리 가방을 다 들어 택시에 실어주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한다. 하루 머물렀을 뿐인데 여러 달 묵다가 떠나가는 장기 투숙객 배웅하는 듯 깎듯이 그리고 아쉬운 표정마저 지으며, 다음에 포르투에 돌아오면 꼭이 호텔에 다시 묵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우리를 태운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가 자유광장을 지나서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커피숍에서 커피를 또 한 잔 마셨다. 면세점 와인숍도 둘러보았는데 도우루산 와인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어서 메리 포핀스처럼 마법 가방이 있다면 다 담아 가고 싶었다. 런던행 우리 비행기는 12시 50분에 이륙했다. 공중으로 떠 오른 비행기 밑으로 아득한 포르투갈의 바다와 녹색 나무들. 그리고 붉은 지붕들의 포르투가 떨어져 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포르투에 작별 인사를 했다. 아데우스 포르투. 황금빛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딸과 함께 즐겁고 행복했다. 나는 R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하얀 구름 위로 비상하고 있었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562) 237-8900 OC**

## 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 모든것 해결해 드립니다

철대문 제작/설치 및 펜스 설치  
 녹슬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  
 플러밍, 페인트, 타일, 에어컨  
 LED Light, Slipfence  
 식당, 하우스, 화장실 리모델링  
 Metal Door, 콘크리트, 방범창살, 핸드레일

**SK 핸디맨** 펜스/플러밍/리모델링  
**909.969.3669**

# TANG

## 순대국 돼지국밥 전문점

**부ENA팩**  
 :: 2호점 ::  
 술 판매합니다.

모둠수육

매운소갈비찜

돼지머리편육

족발

보쌈

옛날 불고기

설렁탕 / 도가니탕 / 감자탕 / 선지해장국 / 뚝배기 불고기 / 감자탕 전골 / 순대접시 / 순대전골 / 냉면

**플러튼 본점** Open: 10am~10pm  
**714.680.9550**  
 1937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

**부ENA팩 2호점** Open: 10am~9pm  
**714.266.0309**  
 72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라스베가스 3호점** Open: 9am~12am  
**702.462.2236**  
 5645 Spring mountain Road Las Vegas, NV 89146

**Buy 1 Get 1 Free**  
 (Beer Only)  
 \*9월 30일까지